

“죽음으로 교회 지킬것”... ‘협박’ 문자

“4000명 성도들, 순교할 각으로 대항할 것”

“사람 몇명 죽으면 조합 박살·조합장 구속”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563억 요구 퇴거 거부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명도소송 상대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뉴스스가 입수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강제 집행 강행은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큰 재산상 손해와 사업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며 “땅값 수준인 84억(원) 공탁금으로 교회 전체를 빼앗긴다는 생각에 성도들은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와 조합 간 의견이 도저히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해야 할 명도집행을 협상다운 협상도 하지 않고 강행했다”며 “그 결과 지난 6월22일 임신 5개월의 여성성도가 용역들에게 맞아서 유산하고 수십명의 성도가 이가 부러지는 등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휘발유를 뭍어 뿌린 청년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진입해 용역들을 몰아낸 일이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교회는 경비인력 주변을 경계하고 전국 조직이 순반대로 외곽에서 대기하며 유사시 교회로 집결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강화해 놓았다”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 실수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교회는 “사랑제일교회의 4000명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전국 수십만 성도들이 순교할 각으로 대항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사람 몇명 죽어나가면 조합은 박살나고 사업은 중단되며 조합장과 임원들은 구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도를 강행하다 큰 화를 자초하지 마시고 지금은 교회와 시간을 갖고 타협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으니 동참해 달라. 그럼에도 명도를 진행하겠다 면 들어오라. 잘 준비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재개발 지역으로 교회를 제외한 주민 99%는 이주를 마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563억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을 기소된 전광훈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직 선거법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 현재보다 6배나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으로 82억원을 감정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강제

철거 집행도 가능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심에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6월4일 기각됐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1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후 지난 14일 제기한 2번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현재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교회 신도들 일부는 교회에서 머물며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국에 총 623명이다. 그 중에는 전광훈 목사와 그의 부인, 비서 등도 포함돼 있다.

기동취재본부

순천 철로서 열차에 치인 60대 근로자 숨져

19일 오후 1시께 전남 순천시 대룡동 모 병원 인근 경전선 철로(순천 방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62)씨가 작업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철로 주변에 난 풀을 베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료 작업지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재산분할 문제로 동생 때린 50대 형 구속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조각상으로 동생을 때려 중상을 입힌 50대 형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동생을 조각상으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형제들과 재산 분할문제로 논의를 하던 중 동생 B씨의 머리를 조각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으며, 의사소견 9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억6000만원 대 임금·퇴직금 체불 50대 사업가

광주 고용노동청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을 고의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업주 A(5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모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사무직 직원 67명이 받아야 할 임금·퇴직금 2억68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쟁 사정이 어렵다’,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주겠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임금·퇴직금 지불을 미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노동청은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병원 11곳을 개·폐업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병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전기·소방·인테리어 공사비 등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체불과 관련해 다수의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같은 전력과 함께 체불금 청산 계획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승순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피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왜 잡아가느냐’경찰관 때린 만취 남매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술자리에서 친구를 때린 뒤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30분께 광주 서구 차평동 한 술집 앞에서 상무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밀치거나 먹살을 잡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 1명을 주먹으로 때려 눕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체포 시도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누나 B(28·여)씨도 동생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거들다가, 또다른 경찰관을 폭행해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교회발’ 진도 확진자 ‘동선’, 영암~무안 전남도청 앞까지 ‘비상’

간접 방문84명 코로나 진단 검사 중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감염이 전남 진도까지 2명의 확진자로 번진 가운데 ‘진도 2번·전남 44번 확진자’가 전남도청 등 행정기관이 밀접한 무안 남약까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도권 발로 시작된 진도 60대 남성(전남 43번)에 이어 같은 마을 거주자 7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70대 남성 A씨는10여명과 함께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께 같은 마을의 전남 43번 확진자와 식사를 함께 했다.

이어 16일에는 차례 등 가족 7명과 진도 자택에서 점심 식사, 영암 석재사와 컨테이너 가게, 무안 남약 소꿉물을 들러 친지들과 남약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귀가했다.

17일에는 진도읍 식당과 카페에 들렀으며 목포·서울에 거주 중인 자녀와 손자 5명이 휴가차 A씨의 집을 방문했다.

A씨의 직간접 동선으로 보면 진도와 영암, 목포, 무안까지 4개 시군에 걸쳐 있다.

특히 A씨의 동선인 무안 남약 인근에는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전남경찰청,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등이 들어서 있어 추가 감염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청내방송을 통해 확진자가 다닌 무안 남약 소꿉물과 식당 등지를 방문했을 경우 신고를 당부했다.

전남 보건당국은 A씨의 직·간접 접촉자 84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A씨 부인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 ‘진도 1번·전남 43번’ B씨의 접촉자 중 A씨 확진 이외에 113명은 음성은 나타났다.

B씨는 지난 17일 오후 늦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앞서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4시30분 경기 김포 70번 확진자(순복음교회)인 30대 남성과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유나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